

생활 속의 공예

■ 학습 목표

- 생활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재료의 표현 방법, 용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 창의·인성 키우기의 주안점

- 공예와 디자인은 인간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공예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이나 미술품을 용도에 맞추어 아름답게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디자인은 생활에 필요한 조형품을 미적인 감각을 살려 목적에 맞게 실용적으로 계획하고 고안하는 것이다.
- 디자인과 공예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각각의 기능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습 전개 PPT 요점 정리 관련 사이트 동영상 활동지 9 지도서 304쪽 활동지 12 지도서 307쪽 활동지 22 CD 자료실

단계	주요 활동		참고 사항/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통하여 공예의 종류를 알아본다. - 도자 공예, 금속 공예, 목공예, 섬유 공예, 유리 공예, 나전칠기, 지 공예, 원초 공예 등 • 다양한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의 재료를 알아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예의 뜻을 알아본다. • 공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 공예의 제작 조건을 알아본다. - 기능성(실용성): 쓰임의 목적에 알맞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양질성(재질성): 알맞은 재료로 견고해야 한다. - 심미성(조형성): 주위 환경과 조화되도록 아름다워야 한다. - 독창성(개성): 새롭고 참신하며 창의적이어야 한다. • 다양한 검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 교과서 예시 자료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특징을 알아본다. • 우리나라 전통 공예의 재료와 용도, 특징을 조사한다. - 국립고궁박물관 사이트 활용하기 - 국립중앙박물관 사이트 활용하기 • 공예의 특징과 조형설에 대하여 알아본다. •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다(PPT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을 찾아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을 감상하고, 재료와 용도, 특징을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후 서로 소감을 교환하고 토론한다. •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미의식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야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공예의 미의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평가	평가 항목			
	이해력	관찰력	발표력	창의·인성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의 재료와 용도, 특징을 이해하였는가?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발표를 하였는가?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경청, 참여하는 태도가 되어 있는가?	박물관 혹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토론에 적극 참여하였는가?

■ 지도상의 유의점

- 시대별로 대표적인 공예품을 알게 하고, 공예품의 용도와 디자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
-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의 차이를 알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PPT **요점 정리**

생활 속의 공예

【학습 목표】
-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 공예품의 재료와 표현 방법, 용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



전통 공예

예부터 우리 조상은 생활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공예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실용적 가치와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결합된 것이다. 왕실이나 특정 계층을 위해 제작된 공예품은 물론, 일반인이 즐겨 사용한 일상 용구나 민예품도 저인사로운 한국적인 미를 담고 있다. 삼국 시대의 금속 공예, 고려 시대의 청자, 조선 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를 비롯하여 나전칠기와 노리개 등 전통 공예품에는 우리 조상의 뛰어난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왼쪽 도금 약선(높이 12.1cm)은 12세기/고려 시대/국립부여박물관 소장품이다. 오른쪽 모란무늬 장군(높이 17.7cm/15세기 후반~16세기 초)은 15세기 후반~16세기 초/조선 시대/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이다. 둘 다 은으로 만든 후 도금을 한 장신구이다.

생활 속의 공예

전통 공예품은 우리 조상의 생활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공예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에 실용적 가치와 조형적인 아름다움이 결합된 것이다. 왕실이나 특정 계층을 위해 제작된 공예품은 물론, 일반인이 즐겨 사용한 일상 용구나 민예품도 저인사로운 한국적인 미를 담고 있다. 삼국 시대의 금속 공예, 고려 시대의 청자, 조선 시대의 분청사기와 백자를 비롯하여 나전칠기와 노리개 등 전통 공예품에는 우리 조상의 뛰어난 미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나전 서류함(26.5×37×7.5cm/18세기/조선 시대/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은 자개(자개)를 얹어 만든 장신구이다. 자개(자개)를 얹어 만든 장신구이다. 자개(자개)를 얹어 만든 장신구이다. 자개(자개)를 얹어 만든 장신구이다.

조선 시대의 유교 사상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사대부는 지배 계층으로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들의 주거 공간인 사랑방에는 책상, 문갑, 고리, 사방탁자 등 간소하고 절제된 가구들이 비치되었다. 전통 공예는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 민족의 고유한 미의식과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역-인생 지주기
직업을 뜻하는 우리말인 전통 공예품을 감상하고, 재료와 용도, 특징 등을 모둠별로 조사하여 자유롭게 발표해 보자.

활동지 9 **활동지 22**



나비 장식 떨비녀(옥, 진주, 은에 도금/너비 7~7.7cm, 꽃이 길이 6.9~9cm/20세기 초)은 조선 시대 왕이 여의 상궁들이 머리를 묶고 대수(대수)로 머리를 묶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비의 모양과 크기로 장식하였다.



4층 사방탁자(나무/38.7×38.7×149.5cm/19세기/조선 시대)는 사방이 뚫려 있고 층널로만 구성된 가구를 사방탁자라 부른다. 간결한 구성과 쾌적한 비례로 좁은 한옥 공간을 시원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삼강기법(나무, 비단/140×140×90cm, 기둥 높이 90cm, 유수(유수)로 장식)는 조선 시대 왕이 머리를 묶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꽃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비의 모양과 크기로 장식하였다.

동영상



창자 상감 문학무늬 백병(도자/높이 41.7cm/고려 시대)

심각 기법의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심각 기법은 선형하고 그릇의 표면에 울려하여 백토나 자토로 데워 유약을 만들고 초벌구이를 한 다음, 창자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를 해서 만드는 고려 시대의 독자적인 기법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창자 상감 문학무늬 백병, 창자 상감 모란무늬 장미리 등이 있다.



1. 표면에 유약을 바른다 2. 백토나 자토로 표면을 채운다 3. 유약을 바른다 4. 재벌구이를 한다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교과서 48~49쪽

▶ **도금 약선** (은/높이 12.1cm/12세기/고려 시대/국립부여박물관 소장)

▶ **모란무늬 장군** (도자/높이 17.7cm/15세기 후반~16세기 초/조선 시대)
같은 화색의 태토로 빛은 표면에 백토를 입혀 장식하였다. 원통형의 길쭉한 몸체에 타원형 굽이 붙은 모양이다. 크고 활짝 벌어진 모란무늬가 과감하게 그려져 있는데, 모란은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장군은 모양이 매우 특이하다. 가로로 길쭉하고 위쪽 한가운데에 작은 주둥이가 있어 다소 둔탁해 보인다. 주로 분청사기에 나타나며 술 담는 통으로 사용하였다.

▶ **분황보** (마/58.6×52cm, 판 8×79.5cm/조선 시대)
분황 암수를 비롯하여 모란 무늬가 있고, 화려하게 수를 놓은 보자기로 궁중에서 사용하였다. 보자기는 계급에 따라 궁중에서 사용한 궁보와 일반 서민들이 사용한 민보로 나누어진다. 분황은 수컷을 봉(鳳)이라 하고 암컷을 황(凰)이라 하며, 용과 마찬가지로 상상 속의 동물이다.

● **나전 서류함**(26.5×37×7.5cm/18세기/조선 시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개 무늬를 오려 포도 잎과 덩굴 수염을 표현하고, 잎줄기는 음각으로 새긴 서류함이다. 이 포도 무늬는 조선 시대 회화와 도자에 즐겨 사용되던 포도 그림을 연상시킨다. 자개를 잘라 붙여 잎과 덩굴 수염의 무늬로 장식하였으며 잎줄기는 음각하여 상세히 표현하였고 여백에는 벌 한 쌍을 넣었다.

● **나비 장식 떨비녀**(옥, 진주, 은에 도금/너비 7~7.7cm, 꽃이 길이 6.9~9cm/20세기 초)

조선 시대 상류층 또는 궁중에서 예복을 입고 대수나 어여머리를 할 때 머리 앞 중앙과 좌우 양쪽에 꽂은 머리 장식품이다. 대표적인 머리 장신구에는 비녀, 뒤꽂이, 떨잠, 땀기 등이 있다. 비녀는 머리를 수발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거나 장식의 역할도 겸하였다.

● **4층 사방탁자**(나무/38.7×38.7×149.5cm/19세기/조선 시대)

사방이 뚫려 있고 층널로만 구성된 가구를 사방탁자라 부른다. 간결한 구성과 쾌적한 비례로 좁은 한옥 공간을 시원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소나무로 만든 이 사방탁자는 네 개의 기둥에 흠을 파고 널판을 맞물려 견고하게 만들었고, 각 층에 책이나 도자기, 수석과 같이 즐겨 감상하는 작은 물건을 올려놓았다. 간결한 비례와 짜임새 있는 형태로 인위적인 장식을 최소화하고 자연미를 살렸던 조선 시대 목공예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조형적인 감각을 보여 주는 가구로 평가받는다.



시클레(Daely, Dan'947~ / 94년) 불그레한 노랑 하얀색을 지닌 거울 3~4cm(2007년) 전 - 크고 무거운 형태와 화려한 색을 활용하여 예술성이 돋보이는 유리 공예품이다.

e
동영상

공예의 조건

- 기능성 - 물고래 및고 사용하?에 따라 다르다
- 조형성 - 아름답고 성숙하며, 품위 가 있어야 한다.
- 독창성 - 새롭고 참신하며, 창의적 이어야 한다.

공예의 아름다움

현대인은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어 한다. 공예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아름답고 향유 있게 만들어 내는 조형 활동이다. 현대의 공예품은 전통미를 계승하는 한편,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것도 많다.

창의·인성 키워기 공예의 종류에 따른 재료의 특징과 조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상력에 활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알동지 12



데일레(Daely, Dan'947~ / 94년) 공작 상공예품(2007년) 전 - 공작의 특성을 살려서, 상공예품을 만들어 내는 유리 공예품이다.



홍정희(947~ / 94년) 금강 배회무늬 유자(2007년) 전 - 은주 x 17 x 33cm(2008년) 전 - 전통 공예 기법인 은 입기 기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수공예품이다.

동영상



홍정희(947~ / 94년) 공작 상공예품(2007년) 전 - 공작의 특성을 살려서, 상공예품을 만들어 내는 유리 공예품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흙, 나무, 돌, 금속, 섬유, 유리 등의 재료로 실용적인 물건을 만들어 생활을 아름답고 중요하게 여겨 왔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제작 기법의 연구 등으로 생활용품이 다양해지고 대량 생산을 통해 더욱 중요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의 공예는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외에도 순수한 조형성을 살린 창의적인 작품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LP(2007) 배회무늬 유자(2007년) 전 - 은주 도자기 형태(2007년) 전



박성철(2007~2007) 전 - 세 있는 차계(2007년) 전 - 이층(2007년) 전 - 이층(2007년) 전 - 이층(2007년) 전 - 이층(2007년) 전

창의·인성 키워기 다양한 열매 방법

- 직물 열 - 그림을 그려서 붓으로 직물 그려서 열매한다.
- 실 열 - 아무런 실을 얹어 밑면에 실을 직물 열매한다.
- 실 열 - 실을 실로 짜거나 매듭을 직물 열매한다. 유문 부분은 열매되지 않는다.
- 실 열 - 무늬짜기와 같이 열매한다. 도장과 관화의 기법과 비슷하다.
- 피라핀 열 - 피라핀이 묻은 부분은 열매되지 않는 필리를 이용한 열매 방법으로, 천에 피라핀으로 윤곽선을 그리고 열매한 후에 피라핀을 녹여 뺀다.



김관현 학생 작품(2007년) 30cm x 30cm

교과서 예시 자료 해설 교과서 49쪽

• **임금 가마**(나무, 비단/140×140×260cm, 가마채 600cm, 유소 126cm/조선 시대)
가마는 조그만 집 모양의 탈것으로 보통 네모난 상자 모양의 커다란 몸체가 있고, 그 위를 지붕이 덮는다. 몸체 앞에는 문을 내고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가 그 안에 앉는다. 몸체 밑 부분에는 가마채라고 하는 두 개의 긴 막대가 있어 네 사람이 손으로 들거나 끈으로 매어 운반하였다.

•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도자/높이 42.1cm/고려 시대)
매병(梅瓶)은 주둥이 바로 아래의 어깨 부위가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아래쪽은 좁은 모양이다. 어깨에서 바닥으로 이어지는 곡선이 매우 아름답다. 청자·백자·분청사기에 두루 나타나는 매병은 원래 중국 송나라에서 유래하였다. 매화를 꽃아 두었다고 해서 매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술을 담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고려 매병 양식의 원형은 원래 송(宋)나라 매병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이미 12세기경에는 고려적인 독특한 선으로 한국화(韓國化)되어 풍만하면서도 좌우 대칭의 유연한 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작품은 고려 매병 양식의 표본으로, 정교하고 섬세한 문양 장식 등 세련미의 극치를 보여 준다. 표현상의 변화 추구하고 함께 문양 처리의 능숙함에서 고려 도자기의 우수함과 고려인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다.

풍만한 어깨와 작은 입에서 시작한 유려하고 당당한 선은 굽도리로 이어져 있고, 푸른 하늘을 날고 있는 학과 구름은 무신정권의 권력자들이 희망하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상감이란 흙으로 그릇을 성형한 후 표면에 무늬나 그림을 새기고, 그 자리를 백토나 자토로 메운 뒤 투명한 유약을 발라 구워 내는 기법을 말한다.

창의·인성 키워기 49쪽

박물관을 찾아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을 감상하고, 재료와 용도, 특징을 조사하고 발표해 보자.

예시 답안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 감상하기 **알동지 22** CD 자료실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 조사하기		
학년	반 이름:	
	제목	모시 조각보(98×98cm)
	재료	옷을 만들고 남은 천
	시대	조선 시대
	용도	물건을 싸거나 덮기 위해 형견으로 네모지게 만든 보이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 우리 조상은 옷을 만들고 남은 천이나 형견을 모아 두었다가 바느질을 해서 이런 보자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 바느질을 할 때 형견의 색과 모양을 전체의 구성에 맞추어 조화롭게 배치하여 상을 덮고 물건을 싸는 실용품이었다. • 현대에 와서 보자기는 우리 고유의 색과 형을 보여 주는 예술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치홀리** (Chihuly, Dale/1941~ /미국) **불그레한 노랑 마키아**(유리/76.2×48.3cm/2007년 작)

치홀리는 미국 인간문화재 1호로 선정되었으며, 이 시대 최고의 유리 공예 장인으로 꼽힌다. 치홀리의 작품은 전통적인 유리 공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유리 공예의 정수를 보여 준다. 유리의 특징인 아름다운 색을 이용한 유기적인 구멍이 돋보인다.

치홀리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베니니(Venini) 공장에서 배운 유리 불기 공정을 기초로하여 화려한 유리 조형물을 만들어 왔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꽃 형태’는 어머니의 정원에서 보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만들었고, ‘바다 형태’, ‘나지미 부표’, ‘보트’ 같은 작품들은 타코마에서 보낸 유년기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에는 정원을 주제로 한 설치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 **데이일리** (Dailey, Dan/1947~ /미국) **로키 산양**(유리/높이 61cm/1997년 작)
로켓을 분사하고 산으로 뛰어 만든 유리 공예 작품이다. 우리는 매우 단단하고 아름다운 광택을 언제까지나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투명한 것도, 불투명한 것도 만들 수 있으며, 착색·성형도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 **홍정실** (1947~ /한국) **금 입사 매화무늬 주전자**(금, 은/9×17×33cm/2008년 작)
전통 공예 기법인 은 입사 기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주전자이다. 입사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자. 입사의 재료는 크게 바탕 금속과 입사 재료로 나눌 수 있는데, 바탕 금속은 철과 청동, 입사 재료로는 금, 은, 동이 사용된다. 입사의 실제 제작 과정은 크게 바탕 작업 과정, 은실박이 작업 과정, 마무리 작업(착색) 과정으로 나누게 된다.

제작 과정은 우선, 입사될 금속의 바탕을 정으로 고르게 쪼아 가는 쪼음질로 거칠어진 표면을 정돈하여 부드럽게 만들고, 은 선을 고르게 박을 수 있도록 하는 갈기질을 한다. 은실박이 작업은 쪼음질 바탕에 은실을 박는 과정으로 입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실현되는 공정이다.

은실박이 작업이 완전히 끝나면, 기물에 채워져 있는 감탕을 제거하고, 기물의 표면을 약산(弱酸) 처리하여 녹내기 작업을 하고, 기물에 쓴 녹을 털어낸 후 검댕 옷(검댕이와 들기름의 혼합물)을 만들어 녹이 난 부분에 바르고, 2차에 걸친 굽기 과정을 거친 후 검댕 옷을 긁어내고 광석로 문질러 은실박이 된 무늬를 따라 광대기를 하는 것으로 모든 작업 공정이 끝난다.

● **동물 종이접기**(종이/왼쪽의 기린 높이 10cm/M사/영국)
영국 M사의 종이접기로 동물의 특징을 살려 단순하게 디자인하였다. 가위나 칼, 풀 등을 이용하여 쉽게 입체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공예의 종류에 따른 재료의 특징과 조형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전통 공예의 종류와 특징 활동지 12 지도서 307쪽

우리나라 전통 공예의 조형성 조사하기		
학년 반 이름:		
주제	공예의 종류에 따른 재료의 특징과 조형성,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공예란?	집 안에 놓이면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갖춘 생활용품이다.	
종류	재료의 특징	조형성/실생활에 활용
지공예	바구니와 방석과 같이 종이 노끈을 엮어 만든 지승 공예, 종이 날장을 두껍게 붙여 기물의 골격을 이루는 지호 공예, 다양한 색상의 한지로 기물의 걸면을 장식하는 색지 공예 등이 있다.	한지의 부드러운 질감과 다양한 색상의 조화가 여성들의 정서에 잘 맞는다.
금속 공예	석에서 제련하여 추출한 금속으로 금, 은, 동, 알루미늄, 합금, 철보 등이 있다.	철보의 경우에는 금속에 유약을 녹여 보석처럼 빛나게 하며, 실생활 장식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자 공예	찰흙으로 만든 후 불에 구워 내는 것으로 위생적이다.	흙과 불이 만나 그릇이 되지만 기법에 따라 청자, 분청사기, 백자, 청화백자 등이 생활속 그릇으로 아름다움을 달리하고 있다.
염색 공예	직물에 물들이는 것으로 천연 염료(식물성 염료, 동물성 염료, 광물 염료)와 인조염료(화학 염료)가 있다.	출치기염, 파라핀염, 날염, 직접 염 등 다양한 기법과 방법으로 아름답게 염색하여 직물을 물들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다.

● **나카시마 하루미**(中島晴美/1950~ /일본) **도자기 형태**(상감 장식/45×40×50cm/2008년 작)

부풀어 오르는 구의 형태를 하고 있는 도자 공예로서 쓰임새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을 중시하였다.

● **박성삼**(1907~1987/한국) **서 있는 지게**(화리, 미송/높이 170.5cm, 너비 100cm /1982년 작)

지게의 형태를 이용하여 삼각 형태로 안정된 기둥을 만들고 밑에 직육면체의 문갑을 넣어 균형감을 살리고 있다. 윗부분은 선반을 만들어 다용도적인 장식성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화리와 미송의 서로 다른 색과 나뭇결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살리고 있다. 간결하게 짜인 형태, 편리한 용도가 돋보이는 향토성이 짙은 작품이다. 간결한 비례와 짜임새 있는 형태로 인위적인 장식을 최소화하고 자연미의 특징을 따랐던 조선 시대 목공예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 **김은진**(학생 작품) **쿠션**(출치기염/30×30cm)
염색할 재료를 묶어서 묶인 부분에 물감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나타나는 우연의 효과를 노리는 염색 방법이다. 제작 과정은 천을 실로 묶기, 준비된 염료에 담그기, 소금물(매염제)을 만들어 염료에 섞기, 매염 처리하기, 맑은 물에 헹구기, 묶은 실을 풀어내어 완성하기이다.

공예의 특징

-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다.
- 주로 건축물 속에 놓이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수공업적인 기술에 의해 미적으로 제작된 일품 공예에서 기계 공예에 의한 대량 생산이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변하고 있다.

공예의 제작 조건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알맞은 재료로 견고하고 안전한 공예품을 제작해야 한다. 또한 실용성 있고 심미적인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공예의 종류

공예는 아름답고 기능적인 실내 생활용구나 장식품을 뜻하는 것으로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1. 목공예

나무는 자연 재료로서 인간에게 가장 친숙하고 향기, 광택이 자연스럽다. 목공예 기법으로는 무늬를 넣는 방법에 따라 나전, 화각, 음양각, 투각 등의 기법이 있으며, 가구, 그릇 등의 일상용품으로 많이 발달하였다.

2. 도자기 공예

찰흙으로 형태를 만든 후 불에 구워 낸 것으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생활 용구로 사용해 왔다. 어떠한 기물의 형태로도 자유롭게 성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단 소성된 기물은 상당히 단단하며 용기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고 어떤 재료보다 위생성이 뛰어나다.

(1) 도자기의 성형 방법

- ① 녹로로 만들기: 물레로 만드는 방법으로 완전한 좌우 대칭형을 만들 수 있다.
- ② 흙판으로 만들기: 찰흙판을 만들고 잘라 내어 흙물로 연결시킨다.
- ③ 빚어서 만들기: 찰흙을 자유롭게 빚어서 만든다.
- ④ 말아서 만들기: 찰흙을 타래 모양으로 길게 빚어 쌓아 올리는 방법이다.
- ⑤ 조각본으로 만들기: 석고로 곁형을 떠서 찰흙 물을 부어 만드는 주입식 방법으로 대량 생산에 알맞다.

(2) 도자기 제작 순서: 성형(모양 만들기) → 그늘에서 말리기 → 초벌구이(약 700~900℃) → 무늬 그리기 → 유약 바르기 → 재벌구이(약 1100~1300℃)

3. 유리 공예

유리는 발견된 초기에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귀중한 물건

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현대에 들어와 기술의 발달로 경제적이고 보편적인 재료가 되었다. 유리의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금속이나 재료의 구조와는 다르다.

유리는 기체, 액체, 고체와 같은 물리적 상태에 따라 질량과 분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리는 물리적으로 고체와 액체가 혼재된 상태의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급격히 과냉각된 액체 상태이지만 일반인들은 고체 상태의 유리로 인식한다.

오늘날에는 합성수지 등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유리 제조법과 가공법의 발달에 따라 유리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유리 공예 기법으로는 블로잉, 램프워킹, 캐스팅, 콜드워킹 등이 있다.

4. 금속 공예

금속 공예의 주재료는 금, 은, 구리, 주석, 철 외에 구리 합금인 청동, 백동, 황동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등도 널리 사용된다.

(1) 가공 방법

- ① 주금: 고열로 녹인 금속을 형틀에 부어 모양을 만든다.
- ② 담금: 금속을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형태를 만든다.
- ③ 판금: 얇은 금속판을 오리거나 눌러서 모양과 무늬를 만든다.
- ④ 야금: 금속을 녹이거나 붙여서 모양을 만든다.
- ⑤ 조금: 금속의 표면을 파고, 굽고, 쪼면서 형태를 만든다.

(2) 입사, 상감, 자개 장식 기법

- ① 금속 입사 기법: 금속의 표면에 선이나 면으로 음각하고 여기에 색이 다른 금속을 박아 문양을 나타내는 것
- ② 청자 상감 기법: 그릇을 태토로 만들고 마르기 전에 문양을 음각한 다음, 그 부분에 백토나 적토로 메워 청자유를 바르고 높은 열에 구워 낸 기법이다.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도자/높이 39.1 cm/고려 시대) - 술을 담아 두거나 술병으로 사용한 매병이다. 뚜껑은 전으로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뚜껑 뒷면에는 학이, 옆면에는 구름이 상감되어 있다. 몸통의 입구 부분과 굽 둘레에는 번개무늬의 띠를, 어깨 부분에는 여의주무늬의 띠를 상감 기법으로 장식하였다. 그 밖의 면에는 구름과 학이 상감되어 있다. 상감 청자는 표면을 음각한 후 백토나 자토로 메워 무늬를 만든 후 초벌구이를 하고 청자 유약을 바른 다음, 재벌구이를 해서 만드는 고려의 독창적인 기법이다.

- ③ 자개 장식 기법: 전복 껍데기를 이용하여 무늬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전이라고도 한다. 은, 동, 황동 등의 금속선을 나전과 함께 사용하거나 투명한 거북이 등껍데기에 붉은색을 칠해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나전 대모국 당초무늬 염주함(높이 4.5cm, 지름 12.4cm/고려 시대) - 나전은 흔히 자개라고도 하고, 대모는 거북의 등껍데기를 얇게 잘라 그 밑에 금박을 깔거나 색칠하여 원하는 빛깔이 비쳐 보이게 한 것이다. 흙칠한 바탕에 신비로운 광채를 발하는 나전과 거북의 등껍데기를 붙여 국화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매우 정교하고 장식적이다.

칠보 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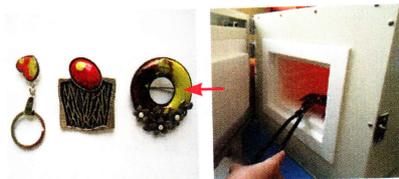
칠보는 금, 은, 동 등의 금속판 위에 칠보 유약을 발라 구워내는 것으로 일곱 가지 보물과 같은 색상이 난다 하여 '칠보'라고 한다. 금속판의 표면에 색유리질의 유약을 약 800℃로 가열하는 기법으로 예로부터 색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속 위에 입혀서 보석 대용품으로 사용하였다. 칠보의 재료는 동판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나 금, 은 등을 쓰기도 하며 도기나 유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도움 자료

칠보 공예 만드는 방법



① 금속이 잘 되도록 1차 구워낸 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포질로 다듬는다. ② 앞면에 색모래 같은 각종 각색의 칠보 유약을 올려 놓는다. ③ 물기가 마르면 2차 굽기 준비를 한다.



④ 칠보 가마 800℃ 정도의 온도에서 굽는다. ⑤ 구운 후 완성한다.

염색 공예

염료의 색을 섬유나 가죽 등에 물들이는 것을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치자, 쪽, 오미자, 잇꽃 등 천연염료로 옷감을 염색하여 실생활에 널리 이용해 왔다. 염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현아(학생 작품) - 원하는 모양으로 바느질을 하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은 후 침염을 하였다. 고무줄로 묶은 부분은 나중에 염료로 칠을 하였다.

(1) 침염

형질이나 실 등을 염료 속에 담가 염색하는 방법으로 홀치기염도 침염의 일종이다.

(2) 홀치기염

실로 매듭을 지어 염료에 담가 염색하는 방법으로 묶은 부

분은 염색이 되지 않는다.

제작 과정: 천을 실로 묶거나 매듭짓는다. → 물에 염료를 풀고 천을 넣는다. → 염료를 15분 정도 끓인다. → 염색이 다 되면 실을 풀고 찬물에 헹군다. → 그늘에서 말린다. → 다림질한다. → 완성한다.

(3) 직접염

천에 붓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서 염색한다. 회화적인 터치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

(4) 날염

나무판 등에 무늬를 새겨 판화처럼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리놀륨판, 목판, 실크 스크린 판 등으로 판을 만들고 염료를 묻혀 찍어서 염색한다.

(5) 파라핀염(납방염)

파라핀을 녹여 그림을 그린 후 파라핀이 묻지 않은 부분에 염료를 칠하는 방법이다.

제작 과정: 천에 밑그림을 그린다. → 천을 틀에 팽팽히 고정시킨 후 파라핀을 녹여 회계 남길 부분에 칠한다. → 염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 → 착색된 천 전면에 파라핀을 칠하고, 굳은 다음 손으로 눌러 균열이 생기게 하고 다시 물감을 칠한다(크랙). → 신문지를 천 위에 놓고 다림질하여 파라핀을 녹여 뺀다.

(6) 전사염

종이에 염료를 그리거나 날염하여 180~200℃의 열을 가해 천에 전사시키는 방법으로 좁은 장소에서 특별한 설비 없이 제작이 가능하다.

7. 지공예

우리의 선조들은 질 좋은 닥나무로 한지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것이 문화 속에 남아 있는 한지 공예[지(紙)공예]이다.

(1) 지호 공예: 종이를 물에 불려 풀을 섞어 찢은 다음 형태를 만들어 물들이거나 색지를 바르는 기법

(2) 지승 공예: 종이를 일정한 크기로 재단하고 이어 붙여 노끈을 만들어 직조하듯 엮어서 만드는 기법

(3) 색지 공예: 종이를 여러 겹 발라 살을 두껍게 하여 골격을 만들고 그 위에 색지와 문양을 붙여 완성하는 기법



성우성 외 10명(학생 공동 작품) - 뼈대는 철사로 먼저 만든다. 페지를 물에 녹인 다음 풀을 섞고 반죽을 하여 점토를 만든 후 이것을 이어 붙여 가면서 만드는데, 마지막 단계에는 한지로 마무리하고 채색한다.



김희운(학생 작품) - 거울을 밖아 필요에 따라 세워져 보게 만든 접는 식의 경대로, 장식도 화려하며 서랍 속의 칸을 많이 만들어 액세서리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쓸모 있는 서랍장을 만들었다.